

# 한국 인구학 연구의 지평을 연 농석(儂石) 이해영 교수

최진호 | 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 I. 머리말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일생 동안 1.5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 사회가 인구가 줄지 않고 그 현상 그대로 유지되려면 모든 여성들이 대략 2.1~2.2명 정도의 아이들을 낳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출산력이 대체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출산 국가로 변모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3년경에 5,068만 명에 도달되고, 그 이후부터는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참으로 걱세지감을 아니 느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불과 40년 전인 1960년에만 하더라도 합계 출산력이 6.0으로 인구 문제가 국가의 초미의 관심 사여서, 어떻게 하면 인구 증가를 억제해서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의 실질 생활 수준 향상에 직접 기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인구 문제

연구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시급한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로 있었지만 당시 한국의 인구학 분야는 특히 더욱 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이 때 농석(儂石) 이해영 교수는 일찍부터 인구학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 인구학의 개척자로서 평생을 인구학 발전에 헌신하게 된다.

## II. 이해영 교수의 생애

이해영 교수는 1925년 흥선대원군의 제 2형인 흥완군의 증손으로, 그리고 한성학교(현 경기고등학교)의 초창기 교장인 이달용 선생의 4남으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니까 이해영 교수는 지금 그리 많지 않은 이(李) 왕가 종친의 한 사람이었다.

1943년에 경기중학교 5학년을 졸업하고 1946년에 서울대학교 예과 문과 2년을 수료한 후 1949년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1952년 9월부터 1955년 9월까지 만 3년 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강사로서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1955~1956년 1년 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유학하였다.

귀국 후 1958년 10월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한 후 1년 간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인 1962년 9월까지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펜실바니아 대학에서의 유학을 통하여 이해영 교수는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Vincent H. Whitney 교수의 격려와 조언에 힘입어 귀국 후 1964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로 인구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이후 이해영 교수는 1976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의 소장으로 12년간 재직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학 분야에 커다란 공헌을 이룩하게 된다.

그러나 아깝게도 이해영 교수는 1979년 11월 18일 54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왕성하게 일할 시기에 타계하여 수많은 동료, 선·후배 학자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 Ⅲ. 학문적 발자취

이해영 교수는 한국에서 최초로 인구학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한 교수로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인구학자들은 대부분 그의 제자들이다.

그는 그가 직접 설립해서 12년 간 소장을 맡았던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그 자신이 직접 행한 연구를 통해서, 혹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를 진작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의 인구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 교수는 이미 1965년에 한국의 중간 도시인 이천읍을 대상으로 차별출산력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한국사회학』 제 2집에 “한국 중간도시에 있어서의 가족 크기에 관한 가치·태도”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천읍의 조사 연구는 1968년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에도 “Family Size Value in a Korean

Middle Town, Ichon Eup”의 제목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이천읍에서 행한 조사 자료는 1966년에 “Family Planning Status in a Korean Middle Town, Ichon Eup”, 또 “Different Fertility in a Korean Middle Town, Ichon Eup”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의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또 이해영 교수는 1973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의뢰를 받아 『인구학 입문』을 펴내 당시 인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쉽게 인구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1974년에 이 교수는 한국 최초로 인구센서스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A Study of the Korean Population*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1966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력과 사망력, 국내 인구 이동과 도시화, 가족과 가구, 1966년 센서스 자료의 평가, 그리고 교육과 노동력 등 5개 부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인데 그 중에서 이 교수는 가족과 가구 부문을 담당하였다.

1975년에 이해영 교수는 권태환, 장윤식, 유의영 교수와 공저로 *The Population of Korea*를 출간한다. 이 책은 세계 인구의 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모노그라프 시리즈의 일환으로서 한국에서는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가 한국의 인구를 정리하여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1970년까지의 인구 성장, 인구 과정, 인구 구조, 인구 이동과 도시화, 노동력, 인구정책 등 한국의 인구 현상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 때까지의 한국의 인구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연구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해영 교수는 1976년부터 유엔 인구활동 기금의 지원으로 한국의 인구 동향과 사회 발전에 관한 공동연구에 착수해 1978년 8월에 전체 4권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 인구와 발전』을 출간한다. 이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은 이 연구에는 모두 26

“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인구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를 고취·진작시켰으며  
또 동시에 후학들의 양성에도 진력하였다.

”

명의 각 분야의 중견 학자들이 참여해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요인을 분석하고 또 거꾸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구 현상에 미치는 영향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인구의 성장, 구성, 분포, 이동 등 기본적인 인구 현상에 대한 분석과 예측은 물론이고 경제, 환경, 자원, 사회문화 및 행정 등 여러 측면에서 인구와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그것이 지닌 의미를 폭넓게 연구하였다. 매우 방대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한 이 연구 결과는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해영 교수는 앞에서 본 바처럼 한국에서 최초로 인구학 강좌를 개설하여 후학들을 가르치는 한편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수많은 연구 업적을 산출해 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설립하여 인구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를 고취·진작시켰으며 또 동시에 후학들의 양성에도 진력하였다.

서울대학교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는 1964년 이해영 교수의 노력으로 미국 인구협회의 재정지원을 받아 문리과대학 부설 인구연구실로 바뀌어 다시 출발하였다. 그 후에 연구의 관심과 실제 연구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966년에는 인구연구소로, 다시 1968년에는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95년에는 또 다시 사

회발전연구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구소는 초기에는 주로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인구협회(Population Council)로부터 그리고 뒤에는 인구협회를 포함한 UNFPA, UNDP, ESCAP, WHO 등 국제기구들과 캐나다의 IDRC 등 외국의 여러 연구기관과 학술재단으로부터 꾸준히 지원을 받으며 크게 두 가지 사업에 치중하였다.

하나는 인구학을 포함한 관련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일인데, 이 교수가 소장으로 재직하였던 1976년까지만 해도 25여 개의 연구과제를 지원하여 수행하였고, 15여 권의 연구 총서와 보고서를 국·영문으로 간행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련 기관과 학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따라서 당시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구학 연구소로 성장하였다.

또 1972년부터는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회보를 매년 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회보 발간 전 일년 동안의 학회나 각 대학, 또 연구소의 논문집에 발표된 한국의 인구나 발전 문제에 관한 논문을 간략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구소의 또 다른 역점사업은 이 분야의 신진학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매년 5~6명의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외국 유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예컨대 1966년부터 1972년까지만 보더라도 모두 23명의 대학원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들 거의 대부분은 지금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중견학자로서 매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 IV. 맺음말

이해영 교수는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가로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1968년부터 2년 간 서울대학교의 교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발전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가 현재의 관악캠퍼스로 통합 이전하게 되었다. 그는 또 1974년부터 1년간 문리과대학의 마지막 학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관악캠퍼스로 이전 후 문리과대학은 사회과학대학으로 통합됐다.

그가 대학의 보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준 행정 능력과 공정성 그리고 정직함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의 경륜과 능력은 또 정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개혁이라든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인구정책 부문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해영 교수는 공사가 분명하고 사리·원칙이 엄정해서 평소 매우 엄하고 무서운 교수로 정평이 나 있었다. 아마 그의 가까운 제자라면 한 번 이상 씩은 그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은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격함 뒤에는 깊은 정이 배어 있어 제자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끝까지 기억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자상한 분이었다. 많은 제자들이 그의 도움과 주선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고, 취직을 할 수 있었으며 또 많은 이런 저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인구변천을 보면서 새삼 그가 인구학계에 남긴 커다란 발자취를 되새기게 된다. **한**

#### 최진호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1990년부터 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사회과학 대학장과 학생처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인구 변화와 삶의 질」 등이 있다.

